**수위라경**

(Suvīrasuttaṃ- Suvīra the Son of Gods- 제석천경, 상윳따니까야 S11.1.1,전재성님역)

제석천11. Sakkasaṃyuttaṃ

1. Sūvīravaggo.

11. 1. 1. 1. 첫번째 품

Suvīrasuttaṃ. 1) 쑤비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이여, 옛날 아쑤라들이 신들을 공격했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은 하늘사람 쑤비라에게 말했다. '그때 쑤비라여, 아쑤라가 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대 쑤비라여, 나아가서 아쑤라에 대항하라.' 수행승들이여, 하늘사람 쑤비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신들의 제왕 제석천에게 대답하고는 그만 게으름을 피웠다.

수행승들이여, 두번째로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은 하늘사람 쑤비라에게 말했다. '그대 쑤비라여, 아쑤라가 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대 쑤비라여, 나아가서 아쑤라에 대항하라.' 수행승들이여, 하늘사람 쑤비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신들의 제왕 제석천에게 대답하고는 그만 게으름을 피웠다.

수행승들이여, 세번째로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은 하늘사람 쑤비라에게 말했다. '그대 쑤비라여, 아쑤라가 신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대 쑤비라여, 나아가서 아쑤라에 대항하라.' 수행승들이여, 하늘사람 쑤비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하'라고 신들의 제왕 제석천에게 대답하고는 그만 게으름을 피웠다.

그래서 수행승들이여, 신들의 제왕인 제석천은 하늘사람 쑤비라에게 말했다.

[제석천] '활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안락을 얻는 곳

쑤비라여, 그곳으로 가라. 나도 또한 그곳으로 보내다오.'

[쑤비라] '게으르고 활동하지 않고 어떠한 의무도 수행하지 않고

모든 욕구의 성취가 있다면 제석천이여, 그 최상의 목표를 보여주시오.'

[제석천] '활동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행복을 얻는 곳

쑤비라여, 그곳으로 가라. 나도 또한 그곳으로 보내다오.'

[쑤비라] '제석천이여, 신들 가운데 높으신 분이여, 우리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제석천이여, 근심도 절망도 없는 곳에 그 최상의 목표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제석천] '만약 누구라도 할 일을 다 마치고 아무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열반에 이르는 길이네. 쑤비라여, 그곳으로 가라.

나도 또한 그곳으로 보내다오.'

수행승들이여, 신들의 제왕 제석천은 스스로의 공덕의 과보로 태어나 도리천 하늘을 지배하고 통치를 하면서 노력과 정진을 칭찬할 것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이 잘 설해진 가르침과 계율 속에 출가해서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아직 도달하지 않은 것에 도달하기 위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기 위해 격려하고 노력하고 수행을 닦으면 이 세상에서 빛날 것이다."

註.

- 하늘사람들의 전쟁 : 신들과 아수라 사이의 전쟁에 관한 붓다고싸의 설명은 이렇다.

마가다 국에 보살이 마가란 이름을 지닌 경건한 바라문으로 30명의 자신과 비슷한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그 자신의 공덕으로 메루 산의 하늘에 사는 싹까로서

동료들과 함께 태어났다. 그런데 이전에 거기에 살던 존재들이 그들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 해치려고 했다. 그러나 싹까의 충고로 동료들은 모두 술에 취한 척만 했다.

예전의 하늘사람들은 술에 취해 메루 산의 도리천에서 떨어졌다. 그후 그들은 아수

라가 되었고 그들은 제석천인 싹까와 추종자들인 33명의 신(삼십삼천)과 전쟁을 하

며 지냈다.

(Suvīrasuttaṃ- Suvīra the Son of Gods- 제석천경, 상윳따니까야 S11.1.1,전재성님역)

Suttantapiṭake
Saṃyuttanikāyo
Paṭhamo bhāgo
Sagāthavaggo
11. Sakkasaṃyuttaṃ
1. Sūvīr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11. 1. 1.

Suvīrasuttaṃ

247. [PTS Page 216] [\q 216/] evaṃ me sut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sāvatthiyaṃ viharati jetavane anāthapiṇḍikassa ārāme. Tatra kho bhagavā bhikkhū āmantesi bhikkhavoti. Bhadanteti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Bhagavā etadavoca:

Bhutapubbaṃ bhikkhave asurā deve abhiyaṃsu. Atha kho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suvīraṃ devaputtaṃ āmantesi. Ete tāta suvīra, asurā deve abhiyanti. Gaccha, tāta suvīra, asure paccuyyāhīti. Evaṃ bhaddaṃ tavāti kho bhikkhave suvīro devaputto sakkassa devānamindassa paṭissutvā pamādaṃ āpādesi.

Dutiyampi kho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suvīraṃ devaputtaṃ āmantesi: ete tāta suvīra, asurā deve abhiyanti. Gaccha tāta suvīra, asure paccuyyāhīti. Evaṃ bhaddaṃ tavāti kho bhikkhave suvīro devaputto sakkassa devānamindassa paṭissutvā dutiyampi3 pamādaṃ āpādesi.

Tatiyampi kho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suvīraṃ devaputtaṃ āmantesi: ete tāta suvīra, asurā deve abhiyanti. Gaccha tāta suvīra, asure paccuyyāhīti. Evaṃ bhaddaṃ tavāti kho bhikkhave suvīro devaputto sakkassa devānamindassa paṭissutvā tatiyampi4 pamādaṃ āpādesi.

[PTS Page 217] [\q 217/] atha kho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suvīraṃ devaputtaṃ gāthāya ajjhabhāsi:

1. Sāṇu-sīmu. 2. Cira āḷaviti-machasaṃ. 3. Dutiyampīti natthi [PTS] 4. Tatiyampīti natthi. [PTS]

[BJT Page 386. [\x 386/] ]

Anuṭṭhahaṃ avāyamaṃ1 sukhaṃ yatrādhigacchati,
Suvīra tattha gacchāhi mañca tattheva pāpayāti.

(Suvīro:)

Alasassa2 anuṭṭhātā na ca kiccāni kāraye,
Sabbakāmasamiddhassa tamme sakka varaṃ disāti3

(Sakko:)

Yatthālaso anuṭṭhātā accantaṃ4 sukhamedhati,
Suvīra tattha gacchāhi mañca tattheva pāpayāti.

(Suvīro:)

Akammunā5 devaseṭṭha sakka vindemu yaṃ sukhaṃ,

Asokaṃ anupāyāsaṃ tamme sakka varaṃ disāti,

(Sakko:)

Sace atthi akammena koci kvaci na jīvati,
Nibbāṇassa hi so maggo suvīra tattha gacchāhi mañca tattheva pāpayāti.

So hi nāma bhikkhave, sakko devānamindo sakaṃ puññaphalaṃ upajīvamāno devānaṃ tāvatiṃsānaṃ issariyādhipaccaṃ rajjaṃ kārento6 uṭṭhānaviriyassa vaṇṇavādī bhavissati. Idha kho taṃ bhikkhave sobhetha, yaṃ tumhe evaṃ svākkhāte dhammavinaye pabbajitā samānā uṭṭhaheyyātha ghaṭeyyātha vāyameyyātha appattassa pattiyā anadigatassa adhigamāya asacchikatassa sacchikiriyāyāti.

Sutta Pitaka
Samyutta Nikāya
Division I - Sagātha
Book 11 - Sakka Saṃyutta
Chapter 1 - Pathamo (Sūvīra) 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uddhassa.

11. 1. 1.

(1) Suvīra - Suvīra the Son of Gods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living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From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hikkhus: “Bhikkhus” and the bhikkhus said: “Yes, venerable sir.”

3. And the Blessed One said thus:

4. “Bhikkhus, in the past the Titans became hostile towards the gods. Then Sakka the king of gods addressed Suvīra the son of gods and said: `Dear one, the Titans are hostile towards the gods. Go and meet the hostility.' Suvīra the son of the gods said `Yes, good sir, I will do it,' and became negligent.

5. For the second time, Sakka the king of gods addressed Suvīra the son of gods and said: `Dear one, the Titans are hostile towards the gods. Go and meet the hostility.' Suvīra the son of the gods said `Yes, good sir, I will do it,' and became negligent.

6. For the third time Sakka the king of gods addressed Suvīra the son of gods and said: “Dear one, the Titans are hostile towards the gods. Go and meet the hostility.” Suvīra the son of the gods said “Yes, good sir, I will do it” and became negligent.

7. Bhikkhus, then Sakka the king of gods said this stanza to Suvīra the son of gods:

“Without an effort and without exercising yourself
pleasantness cannot be attained.
Suvīra, go there, where you can put your evil to rest.”

8. “The lazy one, without effort does not do any work,
Sakka, I have prospered in all sensuality and am given a boon”

9. Suvīra, go to the place where the lazy, effortless
continually prosper in pleasantness
There, you can put your evil to rest.”

10. “Sakka, king of gods, we enjoyed pleasantness without activity.
Sakka I am given a boon, to be without grief and worries.”

11. “If there is anything without activity that does not decay for any reason,
That is the path to extinction. Suvīra, go there and put your evil to rest.”

12. “Bhikkhus, Sakka, the king of gods, supported by the fruits of his merits holds power over the splendor of the thirty-three and rules over them praising the arousing of effort. Bhikkhus, you having gone forth in this well declared dispensation become resplendent if you arouse effort and make endeavor to attain the not yet attained and realize the not yet realized.”